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14

포천사진연구회 회장 박병선



한국사진작가협회 포천시지부 창립요건 갖춰

빛의 영롱한 아름다움 아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영

1998년 포천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립한 포천사진연구회(회장 박병선)는 18명의 회원이 '포천축적사진동우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포천사진동우회'를 거쳐 포천사진연구회로 명칭 변경과정을 거쳤다.

주로 직장인들로 구성된 포천 사진연구회는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를 비롯해 산정호수 역사꽃 축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진 메카니즘을 서로 공유하고 매년 10월중에 전시회를 개최 하는 등 작품활동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 올해 안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천시지부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박병선(48·사진)회장을 만났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정기 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새사진 전시회도 개최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작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회장은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지부를 창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매년 전시회에 그동안 경기문

화재단의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했으나 받지 못했다. 따라서 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기회원전 예산은 포천시가 지원예정인 300만원에 불과해 부족한 금액은 또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박 회장은 올해 여유가 된다면 노인영정사진을 찍어 봉사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예산이 없어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가 내년 사업비로 편성해준다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포천시내 공공화장실에 사진 걸기 운동도 필요한 사업이다. 포천을 소재로 한 사진공모전이 한번도 개최된바 없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훌륭한 작품도 기대된다.

빛의 세계가 영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진예술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박 회장은 사진예술에 관심있는 포천

시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사진연구회 연혁

- 1998. 2. 1 포천축적사진동우회 창립(회장 한대인, 총무 최기진)
- 1998. 9. 5 정기회원전(창작 32점, 관내 문화제 10점, 포천문화원 전시실)
- 1998.10.10 명성산 역사꽃 축제 사진전(창작 20점, 관광 20점, 산정호수 행사장)
- 1999.10. 9 명성산 역사꽃 축제 사진전(창작 25점, 관광 20점, 산정호수 행사장)
- 2000. 2.23 포천시여성회관 개관기념 사진전(창작 40점, 여성회관 전시실)
- 2000. 9. 8 임원개편(회장 이만구, 지도 박병선, 총무 김현주, 재무 김석빈)
- 2000.9.23 명성산 역사꽃 축제 사진전(창작 41점, 관광 22점, 산정호수 행사장)
- 2001.10.6 정기회원전(창작 28점, 여성회관 전시실)
- 2001.10.13 명성산 역사꽃 축제 사진전(창작 28점, 관광 20점, 산정호수 행사장)
- 2002.1.1 동우회 명칭변경(포천사진동우회)
- 2002.10.4 정기회원전(창작 30점, 여성회관 전시실)
- 2002.10.12 명성산 역사꽃 축제 사진전(창작 30점, 관광 20점, 산정호수 행사장)
- 2002.10.20 문학산단풍축제 사진전(창작 32점)
- 2003.1.1 임원개편(회장 이만구, 지도 박병선, 촬영팀장 김현주, 총무 김태현, 재무 임석빈)
- 2003.10.4 포천시 승격기념 정기회원전(창작 30점, 관내 유적 2점, 여성회관 전시실)
- 2003.10.26 문학산 단풍축제 사진전(창작 32점)
- 2003.11.7 임시총회 회칙개정 및 임원개편(회장 이만구, 지도 박병선, 기획간사 김현주, 총무 김태현, 재무간사 임석빈, 사업간사 양현숙)
- 2004.9.11 제15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촬영기차단 봉사활동
- 2004.10.2 제5회 정기회원전(창작 30점, 관내유적 2점, 포천반월아트홀전시실)
- 2004.12.27 정기총회 임원개편(회장 이규준, 고은 이만구, 지도위원 박병선, 기획간사 김현주, 총무 김태현, 재무간사 양현숙, 사업간사 이성숙)
- 2005.10.28 제6회 정기회원전(창작 30점, 전국민속예술축제 20점,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 2006.10.13 제7회 정기회원전(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韓國의 선비정신 · 66

생육신의 한사람 - 추강(秋岡) 남효온(南孝溫)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충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겠는가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남효온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이씨 밑에서 자랐다. 그의 성품은 담박하면서도 굳세고 초월하면서도 깨끗하였다. 일찍이 김종직 문하에서 공부하고, 김시습(金時習)을 스승으로 삼아 세상 밖을 거닐며 세속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육신이 죽은 후 이들의 언행을 기록한 『육신전』을 지어 세상을 알렸다. 육신전을 지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장차 큰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그는 개의치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어찌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끝내 충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리오.”

그는 문장이 뛰어나 일찌감치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늘 과거를 보라고 재촉하였는데도 그는 벼슬과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항상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 모습을 본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비웃었다.

스물 다섯 살 때, 그는 당시의 임금인 성종에게 문종의 비자 단종의 어머니인 소릉의 회복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그때의 죄를 물었다. 하지만 이미 남효온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런데도 연산군은 남효온의 시체를 파내어 양화도 나룻가 모래밭에 뿌렸다.

그의 부인과 사위들은 연산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시체를

남효온(南孝溫) 1454년(단종2)~1492년(성종23).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백공(伯恭)이다. 호는 추강(秋岡),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 벽사(碧沙) 등 여러호로 불린다. 단종 복위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으며, 주로 성종때의 활동이 전해지고 있다.

인물잡이 영육을 초탈하고 지향이 고상하여 세상의 사물에 얽매지 않았다. 1478년(성종9), 스물다섯의 나이로 장문의 상소를 올려 8개항을 건의하였는데 이 중 문종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소릉(昭陵)을 복위하라는 청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내용이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 훈구파의 심한 반발을 샀다. 이 일로 조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이사람들도 그를 미친 선비로 지목하였다.

1480년 어머니의 뜻에 따라 마지못해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그뒤 다시 과거에 나가지 않았다. 벼슬을 단념하고 세상을 초소하면서 과격한 직언을 일삼았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육신전(六臣傳)』을 지어 사육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소릉 복위를 상소한 것을 난신(亂臣)의 예로 규정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다. 저서로 『추강집』, 『추강발화』,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그의 시체는 땅에 다시 묻히지 못하고 강가에 버려졌다.

그의 아들 이름은 충서(忠愍)인데 정신병이 있었다. 연산군이 남효온의 시체를 부관참시하면서 아들도 함께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충서는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죽이려 왔던 관원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볼래 미친 병이 들었으니 인간으로 칠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미친 자가 세상에 있으면 무엇하겠느냐? 반드시 죽여버려라.” 결국 아들 충서마저 죽으니 그의 부인 조씨는 형장에서 시체를 수습해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 시체가 공공 얼어 있었다. 조씨는 밤낮으로 시체를 끌어안고 뚝으로 녹여 얼음한 다음 관에 넣어 장사지냈다고 한다.



뮤지컬의 선구자 제롬 쾨(Jerome Kern)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20세기 초반 런던과 뉴욕에서는 뮤지컬 근대근대에 다른 작곡가의 곡을 삽입하는 것이 유행했다. 제롬 쾨(Jerome Kern, 1885~1945)도 1910년대 초반까지 100여 곡에 달하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중 수십 편이 다른 뮤지컬에 쓰였다.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된 뮤지컬들은 브로드웨이로 건너와서 많은 수정작업을 거쳤는데 특히 좋은 노래를 보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제롬 쾨는 바로 샘플처럼 마르지 않는 좋은 음악의 공급원이었다고 한다.

노래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던 1914년에는 한 작품을 제롬 쾨의 음악이 무려 8곡 이상이 덧붙여진 작품도 있었다. 영국에서 초연된 <유에서 온 아가씨>가 바로 그 작품으로 브로드웨이로 넘어오며 대폭 수정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덧붙여진 음악들은 메인 작곡가의 음악보다도 평가가 좋았고 인기도 높았다. 메인 작곡가의 지명도까지 높여주었다. 메인 작곡가의 음악보다 서브 작곡가의 음악이 주효음으로 평가되며 주역이 전도된 상황은 초창기 뮤지컬 코미디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는 어릴 적부터 부친에게 이끌려 보드빌 공연장에서 자주 공연관람을 했다. 이 때 받은 공연들의

충격과 환상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게 광경 무대를 사랑할 수밖에 안 감정을 심어 주었다고 한다.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의 집안은 조부인 오스카 해머스타인 1세 때부터 극장 사업을 하던 부유한 가정이었다. 미국 극장 건축에 많은 공헌을 한 오스카 해머스타인 1세(Oscar Hammerstein I)는 생전에 11개의 극장을 만들었는데 맨하탄 오페라 하우스(Manhattan Opera House)를 비롯해 서 영국의 런던 오페라 하우스(London Opera House)까지 평생을 극장 사업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인 윌리엄 해머스타인(William Hammerstein)도 가업을 이어받아 유명한 빅토리아 극장(Victoria Theatre)을 경영했는데 특히 그는 보드빌계의 혁신적인 프로듀서였으며 얼굴에 파이를 던져 웃음을 유발하는 '파이 인 더 페이스(pie-in-the-face)'라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창안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예술적 환경에서 자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는 어릴 적부터 예술적인 감성을 키워나갔으며 그에게 무대는 바로 현실이었으며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이다.

1926년,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는 에드너 파비의 소설을 읽고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했는데 제롬 쾨와 함께 제작자 플로렌츠 지그펠드(Florenz Ziegfeld)를 끌어들이었다. 당시 뮤지컬 코미디는 <쇼 보트>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따라서 소설을 각색한 대부분은 당시로써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그렇지만 오페라는 이미 소설이나 희곡을 원작으로 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던 때였다. 예를 들면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의 오페라 <토스카(Tosca, 1900)>는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리아 사르두(Victorien Sardou)의 사극 <라 토스카(La Tosca)>를 개작한 것이며 <나비부인(Madam Butterfly, 1904)>의 대본은 J. L. 롱의 소설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1926년은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가 초연된 해이기도 하다. <투란도트>는 기존의 푸치니의 오페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소재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인데 결말도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본도 <투란도트>(Turandot)란 우화극에서 비롯되었는데 푸치니 사후에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와 제롬 쾨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었는지 밝혀진 바 없지만 푸치니의 음악의 성공과 때를 맞추어 진정한 음악극을 만들고 싶어했던 이들 두 사람의 열정은 다음 해에 무

대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쇼 보트>의 성공 이후 제롬 쾨는 다시 가벼운 오페레타나 보드빌 수준에 머무는 작품을 만들 어냈을 뿐 오히려 퇴보하는 작품 경향마저 보였다. 당시에 능력 있는 작곡가들이 그랬듯이 브로드웨이를 떠나 할리우드에서 영화 음악 작곡에 몰두했으며 자신이 작곡한 노래들의 편곡 정도도만 브로드웨이와 끈을 맺었다. 그렇지만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는 <쇼 보트>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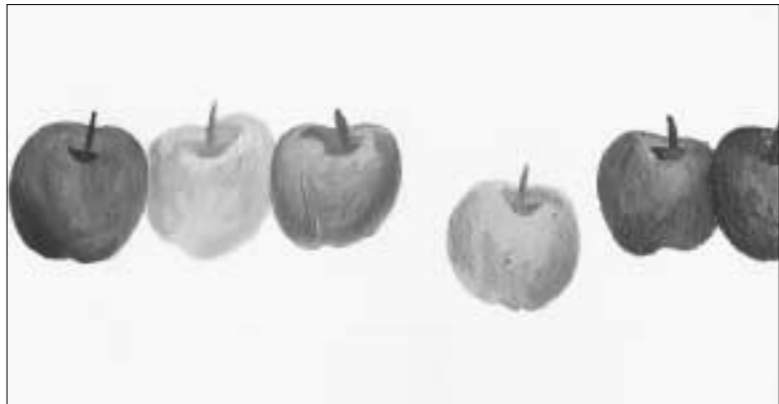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작들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 뮤지컬 명작들의 주역같은 가사들이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에 의해 탄생되었다.

유미현 '그림아 놀자'展 인사동 통인갤러리에서 성료

본지 운영위원회 임대세 운영위원의 부인 유미현 미술작가의 개인전 '그림아 놀자'展이 5월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통인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 왔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제작한 작품을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유 작가는 "아마도 그림은 나에게 친구도 되고 힘들 때는 약이



유미현 작가가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윤이용 운영위원장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되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랄까? 일상의 탈출이자 행복한 시간'이라고 밝히고 "이번 전시회를 그림 아 놀자로 한 것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그림에서 심각한 어떤 의미 부여 없이 가볍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게 나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윤이용 운영위원장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통인갤러리를 방문해 작품감상은 물론 유작가의 작품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인사동 전시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천반월아트홀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

한글교실 수강생 모집

6월15일까지 선착순 30명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교육 기회를 놓치지거나 한글공부에 뜻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수강생을 6월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30명 내외로 모집한다.

교육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1회 포천문화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한글기초, 한글맞춤법이다.

교재 및 교육비는 무료이며 접수 방법은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532-5015, 532-5055)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龜船祝祭(귀선축제)



李曉鍾 포천한시사 대표

龍蛇戰捷守吾東(용사전첩수오동) 忠武名聲烈日同(충무명성렬일동) 임진왜란의 전승으로 우리나라를 지켰으며 충무공의 명성은 햇빛 같구나.

鐘鼓山高雲霧際(종고산고운무제) 姑蘇臺舊日明中(고소대용일명중) 종고산은 높이 운무 속에 있고 고소대는 달빛 속에 솟아있구나.

雄韜智略垂鴻業(웅도지략수홍업) 殉國丹誠振威風(순국단성진위풍) 웅도지략은 큰 업적을 이루었고 나라 위한 붉은 정성은 위풍을 떨쳐냈다.

壯矣龜船戰敵事(장의귀선전적사) 長傳竹帛頌無窮(장전죽백송무궁) 장하다 거북선이 적을 섬멸한 일은 역사에 길이 남아 송무궁 하리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0)

「청와대 할머니」

6·25 전, 38선이 가로 막히자 내 고향 포천은 3일장이 섰다. 5일장이던 것이 영복·일동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음장(장거리 장)과 솔모루 장(소홀을 송우리 장)과 내촌장이 3일만에 섰다.

특히, 솔모루 장은 한수 이북의 우시장중 제일 큰 소 시장으로 초·중학교 교과서(지리)에도 등재될만큼 유명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다.

장마당에는 해방 직 후 북으로 간 만담가 「신불출」도 와 만담을 하고 가끔 곡마단도 와서 전막을 높이 치고 곡마단 곡에도 하여 장꾼들이 구름 같이 모여들었던 생각이 난다.

장마당에는 빠지지 않는 아바위꾼이 와서 속임수 놀음을 하여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속이기로 하고 이상 아릇한 약초를 팔기도 하고 민병통치약이라고 속임수의 약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장마당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 농사기때 농악놀이나 단오 씨름대회도 장마당에서의 흥이 있는 볼거리였는데 「방돌씨」를 비롯하여 몇몇이 환소를 탔다.

그런데 하루는 잘 생긴 할머니가 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 재담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금방 사람들이 모였다. 「청와대 할머니

니가 오셨던가 구경가자」소문은 삼시간에 신을 장거리에 퍼졌다. "뭐 청와대 할머니가 오셨어? 그럼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오셨는가?"

"예! 이 사람 대통령 부인이 미쳤다고 포천 장마당에 오셨는가? 하여튼 가보면 알게 아니겠?" 청와대 할머니 나무 의자 앞에는 필자도 쪼그리고 앉았던 기억이 난다.

"글쎄... 내가 경무대(청와대의 옛 이름)에 들어갔는데...어찌나 떨리는지 혼이 났더니...그때도 대통령 각하의 수발을 드는 일이니까 신이 나서 갔다니까, 알았어?"

"청와대(경무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군요...?"

"내가 청와대(경무대)에서 대통령 각하의 진지상(음식상)에 오를 원장직까지 하고 비를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담고 영부인 옷도 빨고 했던 말이야. 괜스리 애기를 시키는 구만, 북도에 떨어진 돈도 주워다 영부인에게 주겠다고 드리고 서류가 떨어진 게 보여도 꼭꼭 갖다 드렸지. 그랬더니 「포천체스카」여사가 정직한 포천대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월급도 올려 주셨지. 이 웃도 영부인이 주신 뜻이야. 내 아주 청와대(경무대)로 이사하려고 왔던 길에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물어와들..."

누구의 추천으로 청와대(경무대)에서 주방 일을 포천 할머니가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정가나 서울의 고위층 간에는 「포천체」들은 정직하고 음식 솜씨 좋다는 소문이 나고 라디오 연속극에도 출연했다는 소문이 났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